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제3240호 www.metroseoul.co.kr

News p/5

‘메르스 안심병원’ 지원은?

Sports p/21

女축구팀, 사상 첫 16강 진출

/사진출처=blog.joins.com

과태료 공화국

지난해 과태료·벌금 3조2천억원… ‘저항없는 조세’ 사상 최대
“현 정부 출범후 ‘딱지’ 연 100만건 늘어… 세수부족 벌충 목적”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4년 징수한 과태료와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라고 한다”며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 일명 딱지라 불리는 현장단속건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해 당시에도 교통범칙금으로 세수확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10년 만에 3% 이상 늘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과태료가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해진 2010년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징수액이 예산액을 넘어선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2010년의 경우는 첫 시도라 예산액을 과소상계한 결과였다. 당시 예산액은 1272억원, 징수액은 3156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11년 예산액을 7891억원으로 잡아 실제로는 4629억원을 징수했다. 2012년에는 예산액을 7962억원으로 잡아 5184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예산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97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징수액도 77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예산액이 8695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징수액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을 훌쩍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조세 저항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특히 세외수입 중 벌금과 과료와도 다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벌금과 과료는 모두 범죄에 부과된다. 재판부에 좌우된다. 정부가 맘대로 늘릴 수 없는 수입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금전적 징계다. 부과 대상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인 교통 과태료만 해도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10여 가지를 넘는다.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실제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늘려 ‘과태료 공화국’ 논란을 불렀다. 100㎡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을 연 채 난방하는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애견을 등록안해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통적인 과태료 징수 공신인 교통 과태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동참하고 있어 국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하철요금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전문가 보고서에서 ‘부의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였다. IMF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과태료, 담뱃세, 연말정산, 버스·지하철 요금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서민 부담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상돈 "세금 올리겠다는 정당, 선거 필패"

복지에 편중해 무상시비 일으키는건 재검토 필요

"선거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진보의 복지 담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로 열린 '이문현답(異問賢答)' 강연회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대안세력으로 집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보듯 복지에 편중해 쓸데없는 무상시비를 일으키는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선거 필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금 인적 쇄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며 당의 방향성을 꼬집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려면 정책과 노선을 상당히 오른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경우 다른 보수정당이 없어 좌클릭을 하는 만큼 외연이 확대되는 면이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경우 다른 진보정당이 있어서 좌클릭을 하면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총선 참패가 예시로 사용됐다. 이 교수는 "진보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영국 노동당이 대처 보수당에 연패한 것처럼 된다"며 "노동당 지도부인 강경파들이 선거에서 계속해 패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며 노조가 센 지역구에서만 하다 만날 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보수층이 의외로 강고해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싫어하는 후보는 떨어뜨릴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비토의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소한 그런 사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과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너무 두 전직 대통령에 묶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며 "두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그분들의 강점과 단점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선거도 잘하고 집권 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좋은미래 토론회 '이문현답(異問賢答)-한국정치 쇄신의 과제'에서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합류가 무산됐다. 이 교수가 과거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더좋은미래 소속의 강경파 초·재선 의원들도 거칠게 반발했다. 이후 이 교수가 새정치연합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그리스 중앙은행, 치프라스에 반기

"협상 결렬땐 그리스에 대재앙" 경고
이례적 성명에 집권 시리자당 '발끈'

그리스 중앙은행이 17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정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구제금융 연장을 위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대재앙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가 담겼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리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그리스는 지금까지 국제 파트너들의 협력으로 힘겹게 채무 위기를 관리해 왔지만 구제금융 연장 협상이 실패하면 위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금융 시스템과 안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불황을 불러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을 늘려 그리스가 지난 30년 간 이룬 경제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의 집권 시리자당은 이 같은 중앙은행 성명에 대해 그리스 정부의 협상 여건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현재 채권단과 그리스는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만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잔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 은행들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서만 이미 18억 유로가 은행들에서 인출되면서 그리스 중앙은행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841억 유로로 11억 유로 더 확대했다. 이는 예금 인출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ECB의 신뢰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은 그리스가 어느 정도까지 긴축정책을 감내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제공한 24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은 이달 30일 시한이 종료된다. 그리스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 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한다.

/정윤아기자 yoona1@

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 황교안 시험대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278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무소속 3명(정의화 국회의장 포함)이 참여했다. 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3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해준 데 반해 야당이 당론을 반대 비슷하게 해서 조금 아쉽지만 통과가 잘 됐다"며 "국무총리로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 입장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황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황 총리 임명을 두고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기존의 보수 진영을 타깃으로 안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번번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 총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윤정원기자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북한위협은 핑계

미국 생화학전 '30년 로드맵'의 일부로 드러나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자국의 생화학전 30년 장기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송사고를 계기로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 사실이 들통나자 북한의 탄저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우리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탄저균 실험이 포함된 미국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공개자료를 통해 목성 프로젝트가 자국의 생화학방어를 위한 '30년 로드맵'의 일부라고 밝혔다.

18일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미국 방산협회의 화생방 방어능력 포럼 자료에 따르면 대니얼 매코믹 미 육군 화생방합동관리국 참모부장은 지난달 7일 열린 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생화학방어 장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30년 로드맵이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이다.

로드맵은 2012년을 원년으로 잡아 2048년까지 추진해야 할 세부프로그램들을 설정했다. 목성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시작해 중간단계를 2015년까지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중간단계 완료 결과는 CALs라고 불리는 다른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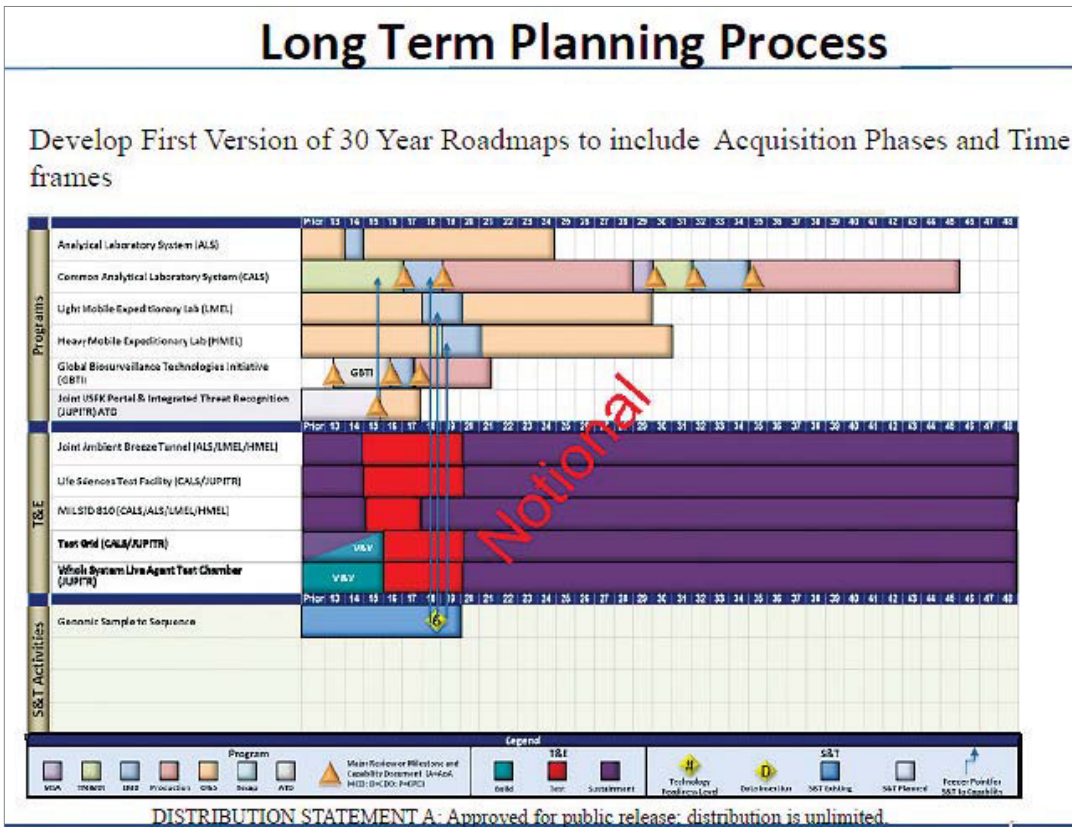
CALs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용자들과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확증분석 능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45년 완료가 목표다.

실제 미 국방부가 공개한 목성 프로젝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2012년 11월 수립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30년 로드맵과 함께 프로젝트가 수립되고 추진됐다는 방증이다.

한국이 탄저균 실험장소로 선택된 이유와 관련해 목성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2014년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지도부가 요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이자 친근하고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저균 위협 때문이라는 주한미군 설명과는 달랐다.

이매뉴엘 박사는 목성 프로젝트 참가국에 대해 호주, 영국, 한국을 지명했다. 탄저균 오배송 사고조사가 진행되면서 한국 외에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 실험이 한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30년 로드맵의 일부로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매코믹 참모부장은 30년 로드맵을 미국 방산업체에 설명하면서 "미국의 화생방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며 업체들의 전략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방산업체들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국방부는 언론의 폭로 이후에야 처음 언급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지난달 7일 대니얼 매코믹 미 육군 화생방 합동관리국 참모부장이 미국 방산협회가 주최한 '화생방 방어능력포럼'에서 미국의 '생화학방어 프로그램(CBDP)'을 소개한 자료. '30년 로드맵'이라고 명명된 장기 프로그램의 일부로 주피터(목성) 프로젝트가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행해졌다.

국회, 이재용 삼성병원 이사장 부를까

복지위 "아직 거론 안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직접 만나 사실상 질책하는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메르스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방문 도중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만나 메르스 퇴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송 원장을 만난 곳은 충북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이었다. 박 대통령이 질책을 위해 송 원장을 불러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만큼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도 지나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삼성의 비즈니스를 고려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감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할 기부금의 대부분을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적자를 메운 나머지 기부금을 병원의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병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윤정원기자 garden@

10달러 지폐 첫 女인물로 교체

해리엇 터브먼·엘리노어 루즈벨트 각축

제이콥 루 미 재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10 달러 지폐의 새로운 디자인은 100년만에 최초로 여성이 들어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초상화의 주인공이다. 어떤 여성이 들어갈지는 이번 여름에 결정될 예정이다.

루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달러 지폐에 새겨질 새로운 인물인 여성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폐는 2020년에 공개된다. 19세기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10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 재무부는 지폐에 넣을 인물을 국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여성으로 초상화를 교체하는 결정은 그동안 다양한 단체들이 화폐에 여성을 넣어달라고 캠페인을 벌여온 결과다.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 달러 지폐의 인물은 모두 남성이었다.

미국 지폐 역사에서 마지막 여성 모델은 마샤 워싱턴으로 1891년부터 1896년까지 달러은증권(옛날 미국정부가 발행했던 은태환 지폐)에 있었다. 지폐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은 포카혼타스로 1865년부터 1869년까지 있었다.

한 여성단체는 10달러 지폐가 아닌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이 있는 20달러 지폐에 여성인물이 나오는 걸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투표로 60만표를 모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해방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은 이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부인출신으로 1945~1951년까지 국제 연합 대사를 지내며 만국인권선언을 기안하는데 도움을 준 엘리노어 루즈벨트도 상위권에 있다.

루 장관은 현재 10달러 지폐에 있는 해밀턴 전 장관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변협, 사시 존치 두고 '내홍'

대의원 "집행부가 분열 조장"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내홍을 겪고 있다. 변협 대의원 347명이 양분돼 사시 존치와 폐지를 두고 격렬한 대치를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8일 변협의 로스쿨 출신 대의원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17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 100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제호 아래 "2017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사안으로써 장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며 사시가 폐지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변협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에 배정함으로써 제도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사법연수원 1년 운영 예산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거론, 사시가 국민의 혈세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시험보다 광범위한 대학, 학과, 지역, 비법학사 출신으로 구성돼 균형 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얘기다.

이들은 "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6000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있다. 그러나 변협 집행부는 이들의 의견은 물론 기존 회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집행부의 의사 개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사시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오 의원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사시 존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연미란기자

박재천 '기억상실증' 호소

<코스틸 회장>

'135억 비자금' 첫 공판 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 내달 3일 다시 열기로

포스코와 중간재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 박재천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와 철강재를 거래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13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법정에서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박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가 함께 와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안경을 쓰고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재판에 임할 준비가 덜 됐다는 박 회장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다음달 3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회장이 검찰 수사 기간 집을 오가다가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재판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기억상실증 진단도 받았다"며 "본인이 한 말을 직접 적어놔야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 등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포스코 비자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최저시급 1만원 관철 위한 서명운동 충북지역 최저시급 1만원 운동본부는 18일 오후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청년 1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뉴시스

'김재철 前 MBC사장' 풍자 PD "무죄"

대법, 징계무효 확정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MBC PD가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모 PD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PD는 2013년 4월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그맨 배칠수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 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그해 3월 자진 사퇴한 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2심은 모두 안 PD가 김 전 사장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사의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서울 지하철·버스, 각각 200원·150원 인상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동의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도 도입된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사회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 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시장이 업무 협의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적인 밥값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박원순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직무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 안심병원 지정만하고 지원은 안하나

보건노조 "보호장구·음압시설 허술… 인력도 부족"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 74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일반 환자가 메르스 감염 위험을 피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2차 접수결과 74곳이 추가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총 87개 병원을 1차로 발표했다. 이로써 안심병원은 모두 161개가 됐다. 이번에 신청한 병원들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중이다. 정부는 열·기침·가래 증세가 있는 호흡기질환자는 별도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걸러 일반 환자로의 감염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안심병원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메르스 거점 치료병원에 이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만하고 지원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신현영대변인은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들에 대한 의료진 보호장구와 음압시설 그리고 기타 재정지원이 먼저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인력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16곳의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병원이 허점투성이어서 부실치료가 우려된다"고 12일 성명서에서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음압시설 자체가 허술하고 보호장구도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메르스 환자진료에 대비한 훈련을 할 때 10명이 1벌로 훈련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는 고무줄이 끊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N95 마스크를 제공해 돌려보냈다"고 파악했다. 보건노조는 계속해서 "부산대병원 역시 호흡기센터 공사 차질로 치료거점 민간병원인 동아대병원으로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울산대병원 발열환자 격리시설.

보건노조는 "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책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면서 "메르스 거점치료병원 지정을 급조하는 등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장비 지원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장의 무능력과 비리로 인해 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안심병원 명단과 자세한 내용은 메르스 포털(www.mers.go.kr)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극심한 가뭄에 42년만에 드러난 댐 수몰지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소양강댐 수위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가운데 18일 댐 준공(1974년)이후 42년간 물에 잠겨 있던 강원 춘천시 북산면 물로1리 옛 마을 가옥 담벼락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변호사, 수임사건 상대방에 피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사진) 변호사가 지난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한씨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강신명 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연내 꼭 신설"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 치안 효율을 위해 경기경찰청에서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올해 신설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한 도에 2개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도 국회에서 몇 년 전 통과된 상태라면서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조금 늦어졌지만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청장은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일산 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설치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파주와 의정부 등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구리경찰서장 시절부터 기존 2청 체제의 불편함과 비효율을 느꼈다"며 "저 자신은 이미 경기 2청을 별도의 경찰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치안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기관이다. 인력 증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여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다. 이 지역에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 1위다. 관할 총인구 290만여 명에 불과한 인천청의 경찰 1인당 시민 수는 108명이 적은 523명이다.

치안공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범죄 건수는 경기북부(10만5154건)가 인천(9만4276건)에 비해 1만여 건 더 많다.

또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등 치안 특성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

경찰 관련 민원 행정 가운데 상당수를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 찾아가 해결해야 돼 시민 불편도 크다. 이에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경기도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이홍원기자 hong@

'국내 필로폰 판매 시도' 日야쿠자 재판에

한국인 여성을 동원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한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한국인 여성 운반책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국내에 입국해 김씨로부터 필로폰 10㎏을 전달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필로폰 판매를 위해 국내 접선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또 다른 일본 야쿠자 조직원 B씨를 추적 중이다. B씨는 현재 일본으로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기자 actor@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1~2곳 예비 인가

| 금융인사이드 |

은산분리규제 대폭 완화 산업자본 50%까지 허용

영업범위 일반은행 동일 5000만원 예금자보호도

연내 클릭 몇번만으로 예·적금 가입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또 재벌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23년만에 네이버 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 은산분리 일부 완화…"진입 문턱 낮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등 세계적인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 흐름에 발맞춰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가로막았던 은산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었다.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ICT기업이 경쟁력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

이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자본과 제2금융권, ICT기업 등의 진입이 용이해진다. 다만 삼성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0% 또는 지분율 이내로 축소된다. 이들의 발행주식 취득도 금지된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시중은행 기준)에서 절반 수분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은행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 예·적금 가입-비대면확인-파생상품 매매 중개업 허용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예·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은행 고유업무부터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겸영업무도 영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채무보증과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과 같은 부수업무도 포함된다.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비대면확인 방식도 12월부터 적용한다. 단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네 가지 방식과 그밖의 다른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건전성 규제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BIS자기자본비율은 바젤1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정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성장 속도 등을 따져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기존 은행에 적용중인 5000만원 예금자 보호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성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인가 업무는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평가위원회에 개별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배제된다. 만약 신청자가 여럿 있으면 건별순차 심사보다는 일괄신청을 받아 한꺼번에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전산사고 등에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유동성이 부족할 때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는 구조다.

시범인가는 오는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한 후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은행을 예비인가할 계획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예정됐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금융개혁회의에서 결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기업의 저력을 생각하면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어린이도 주식 부자

8·11세 4명 6만1338주 보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하 월드와이드)가 본격적으로 한국타이어 주식을 매입하고 나섰다.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회사 주가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등 총수일가 어린이들이 소유한 주식 가치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조양래 회장, 조현식 사장, 조현범 사장은 물론 조 회장의 손주인 재형, 유빈, 재민, 재완 씨도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

2003년생, 만 11세인 재형, 유빈 씨와 2006년생, 만 8세 재민, 재완씨가 보유한 한국타이어 주식은 총 6만1338주다. 18일 종가 4만1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억5779만원 상당이다. 이들 넷이 보유한 월드와이드 주식도 총 1만4018주로 이날 종가 기준 약 2억3620만원 상당이다.

한국타이어는 18일 최대주주 월드와이드가 자사주 8만9000주를 장내매수 했다고 공시했다. 월드와이드가 보유한 한국타이어 지분은 0.07% 오른 25.11%가 됐다.

올해 들어 월드와이드는 활발하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앞서 10일 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 5만3512주를 이달 8~10일 사흘간 장내매수해 지분이 25.00%에서 25.04%로 늘었다고 밝혔다. 월드와이드 측은 한국타이어 주가가 적정선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가가 오를 경우 이익은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돌아간다. 월드와이드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약 74%, 한국타이어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약 42%에 달한다.

한편 월드와이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2012년 인적 분할 방식으로 투자부분을 담당하는 월드와이드와 타이어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타이어로 분할됐다. 현재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한다.

매출은 지분법이익 69.12%, 상표수익 21.32%, 용역서비스, 임대 등이 9.56%로 구성된다.

/양소리기자 10sound@

메르스 만큼 무서운 밥상 물가…"장보기 겁난다"

가뭄·폭염에 채소·과일 값↑ 삼겹살 가격도 4년 새 최고

메르스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가뭄때문에 채소와 과일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매번 다른 반찬을 상에 올리는 건 엄두도 못 내요. 채소·과일·생선 등 안비싼게 없어요." 주부 정모(41)씨.

"최근 메르스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가 더 힘들어요. 가격이라도 싸야 손님들이 좀 살 텐데 어쩌다 오는 손님은 가격만 물어보는는 가네요." 재래시장 상인 임모(54)씨.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에 채소와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육류와 생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공포로 소비심리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밥상물가까지 뛰어오르면서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

18일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1포기·상품) 도매가격은 2183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5.1%나 증가했다. 지난해 배추 값 폭락에 농민들이 올해 재배 면적을 평년보다 13% 줄인 데다 3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영월과 경북 영양 지역의 봄배추 밭에서 출하량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 이유다.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은 배추와 양배추뿐만 아니다. 대파(1kg·상품) 가격은 2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6%, 평년보다 72.4% 뛰었다. 양파(1kg·상품) 가격은 870원으로 전년비 122.5%, 감자(20kg·상품)는 2만5764원으로 75.6%, 마늘(1kg·상품)은 3800원으로 41.8%, 건고추는 8200원으로 24.5% 증가했다.

과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8kg 1통)의 평균 소매가격은 1만458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947원에 비해 12.4% 상승했다.

한우, 돼지 가격도 상승세다. 한우(1kg) 등심 가격은 6만592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3% 평년보다는 9.8% 가격이 올랐다.

냉장 삼겹살(1kg) 가격은 2만3480원으로 지난해 보다 8.8%, 평년보다 22.5% 뛰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1마리)는 5000원대, 갈치는 1만3200원대로 전년비 각각 25.9%, 30% 상승했다.

주부 김모씨는 "메르스로 가족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싶지만 뻔한 살림살이에 물가는 오르고 있어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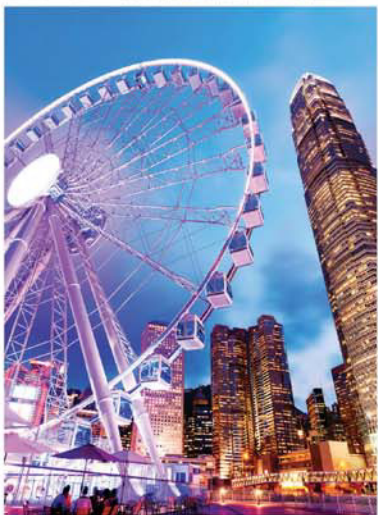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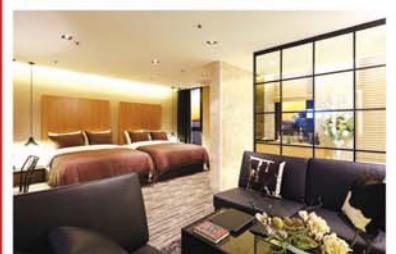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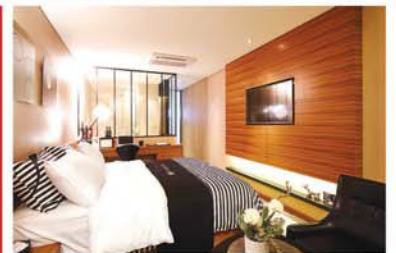
반경 17km
세계 최대 87만여평 규모의
고덕 삼성전자 1단계 (2017년 완공예정)

반경 25km
국대 최대 30만여평 LG전자
진위2일반산업단지 (2017년 입주예정)

반경 3km
한중FTA 최대수혜지인 중국 최단거리 평택항

달콤한 혜택보다
확실한 입지로
말합니다!

반경 5km
'한국의 홍콩' 이라 불리는 70만여평
현덕지구 (2018년 완공예정)

반경 10km
'서해안의 디즈니랜드' 82만여평
평택호관광단지 (2019년 완공예정)

반경 20km
강남 수서역을 18분대에 연결하는
KTX 신평택역 (2016년 개통예정)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그럴듯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입지와 개발호재**에서 찾아야합니다

그 것 이 진 정 한 부 동 산 의 가 치 입 니 다

[수익의 안정성은 입지에서 완성된다]

탁월한 입지 + 평택하버 라마다앙코르 = 안정된 수익

평택하버 라마다앙코르 호텔

미래에셋생명 "상장 후 1등 생보사로 도약"

내달 8일 상장 완료… 신주발행 4000만주
삼성·한화·동양생명과 경쟁 구도 형성

미래에셋생명이 '양보단 질적 측면에서 1등 생명보험사로 거듭나겠다'며 내달 상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래에셋생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스프루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에셋생명의 괄목할만한 경영 성과와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해 지금이 상장의 적기라고 판단, 다음달 8일 상장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공모를 통해 45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입된 자금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재무건전성 강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등에 활용된다.

총 공모주식수는 4539만9976주로 이중 구주매출 539만9976주를 제외한 4000만주가 신주발행주다. 미래에셋생명이 희망하는 주당 공모가는 8200원~1만원이다.

최현석(사진)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들은 '개인 맞춤형의 연금과 보장성 보험의 안전한 플랫폼 구축'과 '탁월한 해외자산운용, 글로벌 자산배분 능력의 경영'을 요구해왔다"며 "퇴직연금 부문과 전 금융산업 내 운용 능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미래에셋이 소명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이어지는 구조적 상황에서 자산관리의 보장성이 중요해지면서 그 책무가 보험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보험업이란 성장산업의 중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플랫폼과 혁신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양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1등 생명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출범 당시 5조6000억원이던 총자산을 지난해 기준 24조7000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9283억원, 영업이익은 1516억원, 당기순이익은 1210억원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 분기 59%로 업계 평균(9.2%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 이번 상장 심사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대형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받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 3월말 기준 317%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보다 높다. RBC는 보험사가 가진 자산에 위험계수를 평가해 그만큼의 자본액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위험계수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미래에셋생명이 이번 상장으로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RBC는 366%까지 오르게 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의 RBC는 각각 393%, 322%, 257%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생보사 중 네 번째로 상장될 미래에셋생명은 자산과 매출 규모 면에서 동양생명과 비교되는 생보사"라며 "공모가 8200원일 때 주가 순자산비율(PBR)은 0.7배, 공모가가 상단인 1만원일 때 PBR은 0.83배 수준으로 생보 3사의 평균 PBR이 0.78배인 점을 감안하면 공모가 하단에서의 PBR은 평균보다 낮고 상단에서의 PBR은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신주 발행을 감안한 올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5%으로 추정된다"며 "경쟁사는 삼성생명(4.9%), 한화생명(6.3%), 동양생명(8.7%)"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2~23일 수요예측을 거쳐 29일~30일 청약을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8일이다. 상장주간사는 삼성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등 세 곳이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기업銀, 모바일로 200여개 금융상품 이용

인터넷전문은행 수준 'i-ONE뱅크' 오픈

스마트폰 하나로 예적금 가입과 대출 상담 등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은행서비스를 이용가능한 플랫폼이 나왔다.

18일 IBK기업은행은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 'i-ONE뱅크'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적금과 펀드, 대출 등 200여개 금융상품을 연중 24시간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계좌이체와 조회 등 기존 스마트뱅킹 서비스는 물론 화상·채팅상담, 개인별 맞춤형 상품추천, 은퇴설계와 자산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카드 충전과 바코드결제, 간편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i-ONE뱅크'에 쉽게 연결하고 탑재할 수 있도록 확장형 플랫폼 구조로 설계됐다.

기업은행은 사기거래 방지 솔루션을 보유한 핀테크기업 '더치트'의 기술을 적용해 계좌이체 시 상대방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IBK 핀테크 Dream공모전'에서 수상한 나인플라바(P2P 대출서비스)와 텐큐브(개인 자산관리솔루션)의 서비스도 'i-ONE뱅크'에 탑재할 예정이다.

권선주 행장은 "'내 손안에 은행'이란 뜻의 i-ONE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풀 뱅킹(full banking)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핀테크기업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뱅크' 오픈을 기념해 2000억원 한도로 특별예금을 판매한다. 특별예금은 'i-ONE뱅크' 앱을 통해 자유적립식 적금과 실세금리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년 만기 적금 기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30%, 예금은 연 최고 2.15%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i-ONE뱅크' 추가거래에 따라 최고 연 0.3%p, IBK기업은행 페이스북 내 'i-ONE뱅크'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 수가 1000개 이상 시 연 0.2%p를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하나금융그룹 IPC 오픈 하나금융그룹은 18일 국내 최초로 외국인 자산가를 위한 International PB Center(IPC)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했다. 왼쪽부터 김승준 IPC 센터장,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리우카이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수석대표, 라란 동조코리아 대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신상국 랑시그룹 부회장,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김교태 삼정KPMG 대표, 박승찬 칭화대 한국총동문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고객 돈 횡령' 금융사고, 회수액 절반도 안돼

1조7740억 중 8442억원
보험사 회수율이 85.9%
증권·서민금융업 '최저'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이 횡령한 고객 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사고금액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예상액은 47.6%(8442억원)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액은 1조7740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별로는 운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이 1조34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민금융(3239억원), 증권(850억원), 보험(188억원) 순으로 나왔다.

반면 사고금액을 얼마나 되찾았는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증권이 11.6%로 가장 낮았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험사로 84.9%에 달했으며 은행은 56.6%, 중소서민금융 17.3%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0년 연간 191건에서 2013년 167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04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신용 등 서민의 돈을 관리하는 중소서민금융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929건의 금전사고 중 중소서민금융업이 348건으로 37.5%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속조치도 제때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낮은 회수율과 금전사고 증가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기관에서 이처럼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회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건설업계, 극동건설 M&A 시선 집중

부동산레이더

투자자들, 부동산시장 호조로 건설사에 관심
내달 동부건설·남광토건 매각작업 탄력 기대

극동건설 인수·합병(M&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추후 매물로 나올 건설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투자은행(IB)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 매각주관사(한영·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6일 M&A 본입찰 마감 결과 예비실사를 거친 4개사 모두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매각주관사는 채권단과 논의 후에 인수에 참여한 4개사 중 유효성을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 지분은 채권단이 보유한 55%다. 현재 채권단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은행(13.7%), NH농협은행(12.1%), 한국무역보험공사(6.2%) 등 순으로 극동건설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동부건설과 남광토건도 매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법원은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매각주관사 선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달 남광토건도 매각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실패후 세번째 M&A 시도다. 남광토건은 이달 말 법원에 매각 관련 보고를 하고 허가가 나는 대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들 업체가 M&A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이들 업체의 재정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조기졸업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는 법정관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7계단 오른 34위를 기록했다.

남광토건은 최근 현금 변제금액을 3943억원에서 809억원까지 줄였다. 출자전환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도 면했다.

지난해 9월 매각 당시 1조2000억원에 달했던 미확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도 지난 1월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78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항만공사 장고항 공사(공사금액 411억원)를 수주하기도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올해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도 최근 실사결과 지난해 1월 기준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500억원 가량 더 많은 6913억원으로 집계돼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부건설이 보유 중인 동부하이텍 지분 10.17%(452만8809주)와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한 후순위 채권 500억원 등 자산 프리미엄이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쌍용건설, LIG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최근 부동산분양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M&A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부건설과 남광토건의 경우 법원의 매각 승인과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며 "극동건설 매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추후 M&A 추진 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대 이후 최대치인 19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이 이달 초 분양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방문자들이 견본주택을 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 19만 가구 육박

2000년 이후 최대치… 경기도 전체 물량의 39.2%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대거 공급이 예정돼 있고 저금리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현재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17만6689가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3만5412가구)보다 4만가구 이상 많은 물량으로, 부동산114가 분양계획을 조사한 이래 상반기 최대 수치다. 종전 최대물량은 지난 2005년 16만4525가구였다.

특히 이달 말까지 추가로 1만~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총 분양 물량은 19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물량의 39.2%인 6만9408가구가 분양됐다. 이어 경상남도(1만9416가구), 충청남도(1만4190가구), 서울(1만2430가구), 경상북도(1만1230가구) 등 순이었다.

올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데에는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리고 미분양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자 수가 더 늘어난 것도 주 요인이다.

건설사들도 당초 계획보다 분양 물량을 늘렸다.

GS건설은 올초 계획보다 70% 늘린 3만30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달 중 분양하는 부천 상동스카이뷰 자이와 8월 예정인 광교 파크자이더테라스, 10월 분양하는 오산 세교 자이 등의 사업은 모두 올해 신규로 수주해 분양계획에 추가됐다. 최근 택지를 매입한 여수 웅천 프로젝트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연초에는 올해 3만15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3만5705가구로 공급계획을 확대했다.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연초 계획 대비 2000가구 가량 확대한 2만2535가구, 2만146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호반건설도 올해 초 계획된 분양 물량에서 인천 서창2지구와 고양 향동1차, 서울 송파 오금동 등 3곳 1542가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분양물량도 1만6485가구에서 1만827가구로 늘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메르스 등으로 하반기로 이월된 물량까지 앞으로도 최소 17만에서 최대20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라며 "저금리와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분양시장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김포신도시 아파트값, 다시 상승세

미분양 전년비 16배↓
내집마련 수요 몰려

대량 미분양 사태를 겪던 김포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 발표로 신도시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개발 호재도 예정돼 앞으로도 김포신도시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김포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3.3㎡ 당 988만원이다. 이는 전 고점의 95%수준에 달한다.

김포신도시는 지난 2008년 첫 입주 당시 3.3㎡ 당 평균 1036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뚜렷한 개발 호재가 뒤따르지 않자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3년에는 매매가격이 3.3㎡ 당 평균 896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발맞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지난 4월 기준 김포신도시의 미분양 물량은 261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동기(4200가구)보다 16배가량 감소한 것.

주요 교통망도 개통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착공한 김포도시철도(한강신도시~김포공항)가 오는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철도는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공항 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지하경전철 사업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주요 교통망 개통예정 등 김포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3.3㎡ 당 1126만원에 달하는 서울 전세값과 비교해도 저렴한 만큼 내집 마련 수요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인사·보수 등 행정업무처리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8일 재개발조합의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재개발조합이 원칙없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업무처리 규정은 ▲인사(상근자 채용과 퇴직 절차 기준) ▲보수(명확한 보수와 상여금 지급 기준) ▲업무(분기별 추진실적 공개) ▲문서(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복무(상근자 근무상황 관리) 등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재개발조합은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김형석기자

삼성물산 합병 성사땐 SDS-SDI 차례?

| 마켓인사이트 |

삼성전자 지배력 약한 관계사 지분 확보 가능
증권가, 이재용 지배력 강화 수순밟기 전망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다음으로 삼성SDS와 삼성SDI를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이명진 삼성전자 IR그룹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SDS)의 합병 가능성 일축 이후에 나온 전망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18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S를 통한 삼성전자 지분 확보는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삼성SDS와 삼성SDI를 합병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없거나 약한 관계사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보다 삼성SDS와 삼성SDI 합병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을 11.25% 갖고 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각각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0.49% 갖고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합병할 것이란 전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바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합병하면 오너 일가와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이 늘어나고, 수조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삼성 측은 양사의 합병을 여러 번 부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삼성SDI와 합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산업계열 관계사 지분확보를 완료,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며 삼성SDS와 삼성SDI의 합병을 예상했다.

그는 "통합 삼성물산과 통합 삼성SDS(SDS+SDI)를 가정할 때 호텔신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삼성그룹 산업계 계열사는 3세의 지배구조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하게 되면 이후 삼성SDS와 삼성SDI가 합병하고 그 다음으로 통합 삼성SDS와 삼성전자가 합병한다면 삼성그룹 산업계 계열사의 수직 지배구조 완성뿐만 아니라 3세의 삼성전자 지배 지분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토대는 완성된 상태다.

아울러 백 연구원은 "삼성SDS-삼성SDI 합병 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주가 움직임을 감안하면 가격 측면에서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한편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S의 주가는 삼성SDI와의 합병 가능성에 전날대비 4000원(1.57%) 상승한 25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삼성SDI는 전날대비 500원 (-0.41%) 하락한 12만2500원에 거래 됐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NH투자증권이 사보 '아미고떼(amigote)'를 6월호부터 웹진 형태로 새롭게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제공

'아미고떼' 웹으로 만나세요

<사보>

NH투자증권
6월호부터 웹진 발간

NH투자증권은 사보 '아미고떼(amigote)'를 6월호부터 웹진 형태로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더 많은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6월호부터 기존의 책자형식에서 웹진으로 발간방식을 변경했다. 그동안 성공을 기원하고 도와주는 당신 곁의 '짝'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인 '아미고떼'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사보를 발행해왔다.

NH투자증권은 기존의 사보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발간됐다. 웹진은 내부 임직원과 일반 네티즌 모두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글로벌 증시, 자산관리 트렌드와 상품정보, 은퇴 관련 정보, 건강·여행 정보 등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매월 15일께 발행되며,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독자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웹진 형태로 선보이는 '아미고떼'는 최고의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담을 것"이라며 "내부 임직원은 물론 외부 고객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미고떼'는 웹진 발간 기념으로 정기구독 신청자에게 영화 예매권, 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정경기자

일양약품, 백신 '승승장구'… 주가 '고공행진'

中 자회사 매출 성장 기대
멕시코서 신약 수출계약
공장 증설 등 호재 잇따라

'일양약품'이 백신사업의 성장과 중국 자회사의 매출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멕시코 제약기업과의 신약 수출 계약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양약품의 주가는 전일대비 11.52% 오른 5만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양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멕시코 제약기업 치노인과 신약 '놀텍'의 기술 수출·완제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이행각서 체결로 일양약품은 초기 기술료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1730만달러를 받게 된다. '놀텍'은 기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 3세대 PPI제제다. 지난 2013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형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놀텍은 지난해 약 170억원의 처방을 기록했다. 일양약품 측은 "놀텍의 특허가 오는 2027년까지 유효해 장기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일양약품이 올해 공장 증설과 판매 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백신 사업의 성장성과 중국 자회사들의 평균 20% 가량의 매출 성장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양약품은 중국 자회사로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양주일양유한공사(52.0%)와 원비디와 같은 드링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45.9%)를 두고 있다. 양주일양은 지난해 6월 공장 증설로 기존의 생산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통화일양은 영비천 라인 증설과 판매 채널 재정비로 향후 5개년 동안 평균 20% 가량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양약품은 또 선진국 대상 판매계약이 가능한 두 가지 신약을 보유 중이다. 하나는 국산 14호 신약으로 지정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놀텍이고, 다른 하나는 국산 18호 신약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다. 슈펙트는 4개국(한국,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상 환자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이 올해 2월 종료된다. 연말까지 한국 식약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유진투자證 "美 기준금리, 9월 인상 가능성 낮아"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옐런 의장, 연내 인상 시사

유진투자증권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9월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종전과 같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사진)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대부분의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의 '연내 인상' 기조를 유지했으나,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지 않았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은 이번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당초 9월 인상 가능성을 80~90%로 봤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9월과 12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50%로 변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의 반등 정도가 관건이나, 9월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하이투자證, 금연기금 3500만원 결핵協 전달

하이투자증권이 18일 결핵아동 돕기 후원을 위한 기금 35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후원금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금연 프로그램 기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임직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와 연계해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건강도 함께 고려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한층 더 의미있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엘리엇 "합병은 불공정" 막판 여론몰이

삼성물산-엘리엇 법정공방 D-day

법원 심문·보고서 공개 임박
합병 반대 정당성 강화 포석
순환출자구조 문제도 지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반대 입장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엘리엇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이 불공정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 수반되는 계획이나 절차가 모든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fairdealforsct.com)를 개설했다. 엘리엇이 합병 반대논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2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엘리엇은 합병의 부당성과 불공정성, 주주들의 불이익을 강조했다.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굴지의 금융사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엘리엇은 삼성의 순환출자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번 합병이 진행되면 제일모직+삼성물산(통합회사)→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회사, 통합회사→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통합회사, 통합회사→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회사 등 5개의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엘리엇은 제일모직이 이건희 회장과 더불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돼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가 됨으로써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엘리엇의 보고서 공개는 19일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심문, 다음달 초 예정된 ISS보고서 공개에 앞서 여론몰이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엘리엇이 심문기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엇이 언급한 순환출자 문제도 공정거래법상 합병 후 6개월 내에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 시너지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엘리엇은 "합병안에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나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경영진은 사업 다각화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테마파크, 건설, 패션, 생명보험사 지분 보유 등의 결합이라는 제일모직의 포트폴리오에서 상업적 논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생활가전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삼성전자, 서비스 확대
에어컨·제습기도 포함

삼성전자 모델이 18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 하우스에서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의 무상보증 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 삼성 생활가전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WW900 세탁기, 스마트에어컨 Q9000, 셰프컬렉션 냉장고, 파워봇 로봇청소기, 2015년형 인버터제습기.

삼성전자는 가정용 에어컨과 제습기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컴프레서의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청소기와 함께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의 무상보증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일원화됐다.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는 정밀한 제어를 통해 사용 환경에 따라 운전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성능은 높이고 소비전력은 낮춰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가전 핵심 부품이다.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생활가전 기술력의 결정체인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 10년 무상보증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9일부터 이번 무상보증 확대 시행을 기념해 인버터 컴프레서가 적용된 에어컨이나 제습기 패키지 상품 구매 시 가격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가정용 에어컨과 제습기의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은 올해 1월에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임은정기자 eunj71@

삼성전자, 美서 차세대 방송 개척

방송그룹과 표준 도입 MOU

삼성전자 존 갓프리 전무가 17일 미국 싱클레어의 마크 에이킨 상무와 펄의 앤 쉘 총괄운영 디렉터를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차세대 방송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최대의 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펄(Pearl) 그룹, 싱클레어 방송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과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17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무소에서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 도입을 위해 이들 그룹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펄은 미국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시청하는 200여개의 방송 송신타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 2위인 싱클레어는 북미 300개 지역 방송사 연합이다.

이번 MOU 체결로 3사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을 구체화하고 미국 정부와 방송 업계를 대상으로 시연하는 데 협력한다.

ATSC3.0은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초고화질 영상의 송출과 인터넷을 융합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ATSC 3.0이 구현되면 UHD 방송과 양방향 방송 등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싱클레어의 자회사인 원 미디어와 함께 UHD TV 전송 기술을 공동 제안해 ATSC 3.0 잠정 표준에 채택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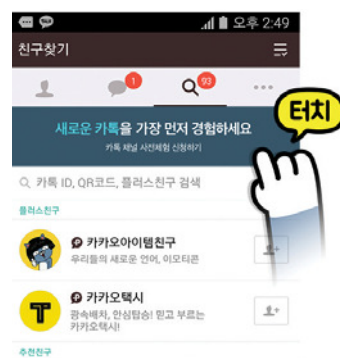
/양성운기자 ysw@

다음카카오 '채널' 사전체험단 모집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의 공식 출시에 앞서 100만명의 사전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톡 '채널'은 이달 말 공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 '친구찾기' 기능을 담당하던 세번째 탭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 기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 허브(Hub)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사전체험단 운영을 통해 '채널' 서비스를 점검하고 품질 향상과 함께 기대감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번째 탭에 위치했던 '친구찾기' 기능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첫번째 탭인 '친구'로 옮겨진다.

카카오톡 '채널'의 사전체험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6월 16일 출시된 카카오톡 5.0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18일부터 21일 자정까지 세번째 탭에 노출되는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iOS 이용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이용자는 23일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 수령 후 앱을 재시작하면 '채널'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양성운기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다이아몬드 컬렉션' 美 진출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다이아몬드 컬렉션'. /LG전자 제공

LG전자는 프리미엄 주방가전 패키지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출시하고 미국 가전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스테인리스 재질과 고급스러운 블랙 코팅 디자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주방 가전 패키지다.

LG전자는 올해 미국 베스트바이, 홈디포 시어즈, 로스 등 대형 가전 유통업체 2천여 매장에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진입시킬 계획이다.

LG전자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다이아몬드 컬렉션'에 반영했다. 기존 스테인리스보다 관리가 쉽도록 이물질이 잘 닦이는 코팅을 적용했고, 새로운 디자인과 통일감 있는 주방을 위해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했다.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돼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얼음 정수기냉장고를 포함한 냉장고 6개 모델, 오븐레인지 2개 모델, 전자레인지 1개 모델, 식기세척기 1개 모델이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프리미엄 주방 가전 패키지로 미국 가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현대·기아차 '품질만족도' 벤츠 제쳤다

美 JD 파워 '신차품질 조사'
일반·고급 브랜드 모두 처음으로 日브랜드 눌러 벤츠, 업계 평균 턱걸이

현대·기아자동차가 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독일차와 일본차 업체들을 제치고 신차 품질조사 순위에서 상위권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포르쉐는 선두를 달리며 이름값을 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현대·기아자동차 보다 한참 뒤쳐져 중하위권에 포진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18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의 올해 신차품질조사(IQS)에 따르면 포르쉐는 100대당 불만 80건으로 1위에 올랐다.

IQ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차량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고객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초기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PP100, Problems per 100 Vehicles)로 나타낸 결과다.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의미한다.

제이디파워는 1968년도에 설립된 자동차관련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문 업체로, IQS 결과는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이용된다. 재규어는 93건으로 3위에 올랐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각각 86건, 95건으로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피니티(97), BMW(99), 쉐보레(101), 링컨(103)이 뒤를 달렸다. 렉서스(104)와 토요타(104)는 동점을 받았다.

포드(107)와 혼다(111)가 뒤에 섰고, 메르세데스-벤츠(111)는 업계 평균(112)을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아우디(115)와 볼보(120), 닛산(121), 미니(122), 폭스바겐(123)은 평균치 아래로 달렸다.

랜드로버(134), 지프(141), 크라이슬러(143)가 뒤를 이었고 피아트(161)는 전체 33개 브랜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브랜드와 고급브랜드를 망라하고 처음으로 일본 브랜드 전체를 눌렀다.

현대·기아차는 제조품질 향상을 위해 시장과 고객중심의 품질 마인드 혁신과 품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품질생산성(Qualitivity) 제도를 운영해 올해 처음으로 '기아 광주 1공장'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우수 품질공장상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2011년부터 시장환경 변화를 꾸준히 감지해 선제적인 품질향상 활동을 추진해 온 정몽구 회장의 신 글로벌 품질경영 결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차량 개발 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품질표준(Q-Standard)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현장에서 협력사와 함께 직접 품질을 검증하는 고유의 소통 및 협업 기반시설인 품질클러스터(Q-Cluster)를 구축해 시장과 고객 중심의 신차품질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아우디코리아 "뉴 아우디 A1, 올 500대 팔겠다"

5년來 해치백시장 1만대 규모 "점유율 18%까지 확대할 것"

"아우디는 앞으로 2030세대가 수입차 시장의 중요한 고객층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뉴 아우디 A1'같은 3000만원대 합리적 가격의 엔트리 모델들은 아우디에게 중요한 시작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성능·디자인이 개선된 소형 해치백 뉴 아우디 A1을 서울 논현동 SJ 쿤스트할레에서 18일 공식 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소형 해치백 '뉴 아우디 A1'을 18일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아우디 제공

타머 사장은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뉴 아우디 A1 500대 판매를 예상한다"며 "국내에서 해치백 시장은 2018~2020년까지 1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 중 아우디는 15~18%까지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뉴 아우디 A1은 총 5가지 모델이 소개됐다.

30 TDI모델은 스포트와 스포트 프리미엄 두 차종으로 출시됐다.

뉴 아우디 A1 스포트백 30 TDI는 디자인, 디자인 프리미엄, 스포트 프리미엄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 됐다.

뉴 아우디 A1의 가격은 'A1 30 TDI 스포트'가 3270만원, 'A1 30 TDI 스포트 프리미엄'은 3620만원에 책정됐다.

5도어 'A1 스포트백 30 TDI 디자인'은 3370만원, 'A1 스포트백 30 TDI 디자인 프리미엄'과 'A1 스포트백 30 TDI 스포트 프리미엄'은 3720만원이다.

뉴 아우디 A1에는 유로 6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1.6 TDI 디젤 엔진과 7단 S트로닉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최고속도는 200km/h, 최고출력 116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9.4초(스포트백 모델 9.5초)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16.1km/ℓ(스포트백 모델 16km/ℓ)다.

3도어 아우디 A1 30 TDI는 전장·전폭·전고가 각 3973㎜, 1740㎜, 1416㎜다.

5도어 아우디 A1 스포트백 30 TDI는 각각 3973㎜, 1746㎜, 1422㎜로 부분변경을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쐐기형 컷 디자인이 적용된 헤드라이트와 아우디 싱글 프레임 그릴을 비롯해, 입체형 본네트, 헤드라이트에서 시작해 테일램프가 장착됐다.

'뉴 아우디 A1'은 모든 모델에 제논 헤드라이트와 LED(유기발광다이오드) 테일라이트, 알루미늄 룩 인테리어, 앞좌석 스포츠 시트, 아우디 통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 MMI와 함께 6.5인치 풀컬러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넉넉한 앞좌석 공간과 시트는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선사한다.

뉴 아우디 A1은 지난 2010년 8월 유럽 시장에 출시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50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재규어, 신차교환 보상서비스

디스커버리 스포츠 대상 구입 1년 이내 사고 차량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사진)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구매 고객 중 KB캐피탈 운용 리스 고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시작으로 재규어 XE 등 향후 출시될 신차에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KB캐피탈과 운용하는 리스 상품과 금융 상품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신차 교환 보상 서비스는 가입 고객이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해 공임을 포함해 신차 가격의 30% 이상 되는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새 차로 교환해 주는 고객 서비스다.

교환 차종은 동일 차종의 동일 모델이 원칙이다.

신차 교환 보상 범위는 차대차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50% 미만일 경우이며 기존에 타던 사고 차량은 수리해 반납해야 한다.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고 내용과 과실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보험사의 사고확인서부터 보험사의 과실상계, 수리비 지급 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신차 교환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전시장과 재규어 랜드로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기자

쌍용차 '티볼리' 유럽 본격 공략

시승행사 이어 대대적 광고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티볼리의 글로벌 론칭행사와 TV광고캠페인을 통해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달 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베네룩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등 중부 유럽 6개국 딜러와 고객 2100여명을 초청해 티볼리 론칭행사와 시승행사를 개최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유럽 최대 스포츠채널인 유로스포츠를 통해 대대적인 티볼리 광고캠페인을 시작했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the ordinary)'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촬영된 광고는 향후 3개월간 유로스포츠, 유로스포츠2, 유로스포츠닷컴 등 유로스포츠 TV 및 온라인, 모바일 전 채널을 통해 유럽 54개 국가에서 방영된다. /이정필기자

만도 "제네시스에 AEB장착 후 美서 35% 판매 증가"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자동 충돌방지 시스템(AEB)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근 AEB를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도록 미국 정부에 건의했다.

NTSB는 작성한 보고서에서 "AEB 장착을 통해 매년 사상자가 늘고 있는 자동차 추돌사고의 피해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만도는 국내 최초로 AEB를 개발해 현대자동차의 신형 제네시스에 장착했다.

이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약 35%의 판매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옥션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SKT, 일상생활 투입 '5G 로봇' 만든다

로보빌더사와 MOU… 동일 채널 양방향 전송기술 적용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재난대응·교통통제 등 차세대 로봇기술 개발에 나섰다.

18일 SK텔레콤은 국내 중소기업 로보빌더(대표 박창배·장흥민)사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재난현장·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5G 로봇'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G 로봇'은 5G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제시한 콘셉트형 로봇이다. 인간의 모습과 외형이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슈트를 입은 조종사의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따라 움직인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제어 기술 ▲재난방재 기술 ▲인간의 행동·감각·반응을 모방해 인간과 교감하는 지능형 기술 ▲로봇이 감지한 감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실감체험 기술 등 로봇의 성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SK텔레콤은 '5G 로봇'이 감지한 방대 양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초저지연(Ultra Low Latency)' 속도로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파의 간섭 신호를 실시간 파악하고 제거하는 '동일 채널 양방향 전송' 기술 등을 '5G 로봇'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이번 MOU는 5G가 표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 5G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실체를 만들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 WIS 2015에서 실시간으로 모션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영상, 음성 센싱 등도 연구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래에는 로봇에 5G 기술이 접목돼 원전사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재난로봇이나 원격수술을 진행하는 의료로봇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한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통경찰 로봇도 곧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경찰 로봇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통제요원에게 보내고, 통제요원은 무선로봇제어기를 통해 로봇을 조종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

최 원장은 "5G가 기술의 혁신을 넘어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개발자들과 사업적 기회를 발견하고 만들겠다"며 "5G 로봇을 통해 미래형 서비스를 보다 실감나게 구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지난 5월 SK텔레콤이 WIS 2015 전시관에서 시연한 5G 로봇(왼쪽)과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오른쪽), 박창배 로보빌더 대표가 재난현장·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5G 로봇'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구자균 회장, 스마트 에너지기술 도입 강조

ACEF 기조연설

LS산전은 구자균 회장이 전날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사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 클린 에너지 포럼(ACEF)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전력 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로서는 증가하는 전력 피크 수요 관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제안하며 스마트 에너지가 아시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각종 정책, 규제, 사업 주도권 등의 걸림돌이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EF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이 민관 협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은정기자 euni71@

17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사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 클린 에너지 포럼에서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LS산전 제공

SKT, 전화번호 없어도 그룹통화 가능

'T그룹on' 업그레이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주소록에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과도 그룹통화와 개인형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T그룹on 업그레이드 버전을 18일 출시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T그룹on은 2013년 6월 출시하여 30~40대 직장인 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통화 서비스다. T전화에서도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그룹통화와 차별화하여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전화를 놓친 수신자가 그룹통화의 진행 여부를 확인 후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제3자 추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관계 형성이 많아지는 최근의 사회 트렌드를 감안해 앱을 설치한 사람끼리는 전화번호 공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룹채널'을 추가했다.

그룹채널은 그룹통화와 유사하게 참여자들끼리 공통의 대화방에 입장해 그룹으로 대화할 수 있는 '라이브챗'과 생방송 라디오처럼 개인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브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브캐스트'에서는 방장이 방송 중에 청취자와 통화 연결을 최대 3명까지 진행할 수 있다.

T그룹on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안드로이드OS 4.0 이상의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발신자가 모든 참여자의 음성통화 요금을 부담하는 전화걸기방식에서는 SK텔레콤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모델들이 SK텔레콤 그룹통화 T그룹on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LGU+ 홈서비스 기사들 메르스 예방 총력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의 홈서비스 기사들이 메르스로부터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팔벗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홈서비스 기사들이 식약청에서 승인한 MD125 강력 살균제로 고객 집안 내 신발장, 거실 테이블, 문고리, 리모컨, 컴퓨터 등 메르스 감염이 예상되는 모든 경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MD125는 미국환경청에 등재된 약품으로 세계 최고의 박테리아 킬링 효과가 있는 강력 살균제이고 신종플루, 조류독감, 슈퍼박테리아 박멸 등에 사용되고 있다.

홈서비스 기사는 2200여명이고 하루 평균 개통 및 AS를 합쳐 1만 2300여건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CR전략실장(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LG유플러스 메르스 대책반'을 구성, CR전략실을 비롯해 네트워크(NW), 서비스기획(SC), 서비스개발(SD), 인사, 법무 등이 참여해 메르스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 중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 중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들의 6월 한달간 이용한 휴대폰 국내통신요금을 면제해 주고 데이터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070), IPTV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정문경기자

KT, 전국 올레매장 직원 '올레 기가 티셔츠' 착용

KT(회장 황창규)는 5G와 기가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유통 채널인 올레 매장의 하계 유니폼을 '올레 기가 티셔츠'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달 내 전국 올레 매장 직원이 착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레 기가 티셔츠는 올레 브랜드 색상 중 하나인 그레이를 기본으로 깃, 소매, 주머니 등에 블랙 색상을 포인트 활용했다. 기가의 빠른 속도를 형상화 한 '번개' 패턴을 적용했다.

아울러 '5G'와 '기가 LTE'를 심플한 디자인의 패치로 부착해 KT의 기가 LTE 상용화를 통한 5G 리더십 확보 및 기가토피아 실현 의지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원들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고려해 신축성을 살린 기능성 소재를 활용했으며, 빠른 땀 흡수와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한편 KT의 미래 전략 목표인 '기가토피아'를 고객 및 사내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기가토피아 PR 이미지'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이덴티티 부문'과 '소비재 상품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정문경기자

롯데百, 5000억 버는 영등포점 방 빼나

최근 3년간 순익 76%↑ 지급 배당은 80% 줄여 철도시설公 재계약 고민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매년 5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서울 영등포역사에서 내몰릴 처지가 됐다. 최근 3년간 영등포점의 순익이 7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이 지급 배당을 80% 줄이자 임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2017년 점용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공단은 2017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점용 계약 만료를 1년 반을 앞두고 18일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역사내 상업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지, 원상복구할 지, 롯데역사와 계약을 연장할지 판단하기 위한 용역 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사안은 7월 용역 계약이 완료된 후 방향이 잡힐 예정이다.

철도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점용허가 만료시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업계는 시설 원상복구에 1000억원이 소요돼 사실상 원상복구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등포점이 국가에 귀속될지, 롯데역사가 계약 연장에 성공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롯데 측은 백화점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황금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영등포점의 매출은 롯데역사 매출액의 평균 30%를 웃돈다.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한 롯데역사의 매출은 2012년 6823억 5220만원의 36.47%, 2013년 6741억2031만원의 34.82%, 2014년 6516억7362만원의 30.33%를 기록했다. 여기에 순익도 76% 증가했다. 2012년 118억3715만원에서 2014년 491억2718만원으로 75.9% 증가했다.

하지만 롯데의 지급배당은 80% 감소했다. 2012년 2063억원에서 2014년 397억6090만원으로 80.72% 감소했다.

이는 경쟁사인 한화역사와 비교할 때 역행하는 수치다. 한화역사의 배당금은 2012년 11억8362만원에서 2014년 39억3004만원으로 69.88% 늘었다.

이 때문에 롯데역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최연혜)로부터 쥐꼬리 배당을 지적당하며 2012년 이익배당 가처분('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롯데역사가 영등포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혜 의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점용 계약이 2017년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7월 중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국가에 귀속시킬지, 원상복구할지, 롯데 측과 계약 연장할지를 판단할 용역 계약을 완료한 뒤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순익 증가에도 지급 배당을 줄인 이유는 매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점용 계약과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디올, 한국서 공격적 행보… 국내 첫 전시

'에스프리 디올-디올 정신'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념

세계적인 명품그룹 루이뷔통 모에헤네시(LVMH)의 디올이 국내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챤 디올은 20일부터 동대문DDP에서 '에스프리 디올-디올 정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디올에서 여는 국내 첫 전시회로 LVMH그룹 내에서는 루이뷔통에 이어 두 번째다.

총 10개의 테마로 구성된 공간에서 1947년 봄·여름 오뜨 꾸뛰르 컬렉션에서 선보인 바 앙상블부터 현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라프 시몬스의 작품들까지 공개한다. 전시된 작품들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크리스챤 디올이 작품 활동에 있어서 영감을 받은 장미·예술가 등을 비롯해 디올의 드레스를 입었던 유명 스타 등 각각의 테마에 맞춰 전시장을 꾸며 볼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회에는 특히 국내 작가 6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몽테뉴가 30번지에 위치한 하우스 오브 디올을 표현한 서도호 작가를 비롯해 이불·김혜련·김동유·박기원·박선기 작가 등의 예술품을 곳곳에 설치했다.

수석 큐레이터 플로렌스 뮬러는 "지금이 음악·디자인·패션으로 유명한 한국과 디올이 대화를 나눌 시점"이라며 "한국의 많은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문화와 접점을 찾기 위해 이들과 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20일에 맞춰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청담동에 오픈한다. '하우스 오브 디올'은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챤 드 포잠박이 설계했으며 인테리어는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맡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 규모로 액세서리·파인주얼리·타임피스·우먼즈웨어·슈즈·디올옴므 등을 비롯해 VIP 라운지·갤러리·카페 디올이 들어선다.

화장품 사업은 국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지난 17일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화장품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모레가 쿠션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디올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디올이 쿠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흘러나왔다. 아직 출시 일정은 미정이지만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디올의 이 같은 공격적 행보는 명품 브랜드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뜻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홈플러스, 쿨기능성 이너웨어 기획전 18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쿨기능성 이너웨어 기획전'을 알리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여름철 쿨기능성 이너웨어인'에어플러스'를 5,900원부터 판매하고 일반 이너웨어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식약처, 대형마트·편의점 등 PB제품 적발

롯데마트·씨유·세븐일레븐 등

대형마트 롯데마트와 편의점 씨유(CU), 세븐일레븐 등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유통매장에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유통업체는 3곳이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마트의 '통큰 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했다.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씨유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청우식품이 제조한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한화갤러리아, 농수축산품 명품화 나선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참여업체와 MOU

한화갤러리아는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우수참여업체 6곳과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한화갤러리아 황용득 대표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인 이병우 센터장을 비롯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지역 우수참여업체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참여 업체는 충남 태안 솔트뱅크·금산흑삼·당진청삼·미녀와김치·예산사과와인·한산소곡주 등 6개사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업체의 농수축산품 명품화 육성을 위한 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스토리텔링 중심의 상품 마케팅 제안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배스킨라빈스, 30주년 기념 30% 할인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델들이 배스킨라빈스의 '30주년 패밀리 30%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비알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부터 23일 까지 열리는 이번 할인 행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5가지 맛을 담은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30% 할인된 가격 1만35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점포당 70개 한정 판매. /연합뉴스

식품업계 여름사냥 돌입

시즌 한정 메뉴 출시 차갑게 먹는 제품 봇물

얼려먹는 환타

아이스파임

얼려먹는 세븐

더위가 본격 찾아오면서 식품업계가 여름준비에 바빠졌다. 여름한정 메뉴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까지 활발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는 여름시즌 한정 제품을 출시했다. 바삭한 패스트리 사이에 크림을 듬뿍 넣은 크림 쿨패스트리와 블루베리 잼과 크림을 넣은 블루베리 쿨패스트리, 캐러멜의 달콤함이 극대화된 카라멜 쿨패스트리 등이 대표 제품이다. 차갑게 먹어야 더욱 맛있는 '쿨~망고 요거트 케이크'는 새콤달콤한 망고 무스와 상큼한 요거트 무스가 어우러진 여름 맞춤형 제품이다.

삼양그룹의 세븐스프링스는 여름 메뉴 5종을 선보였다. ▲케일·연근·아스파라거스를 가니쉬로 사용해 풍미를 더 한 한우 채끝 스테이크 러브 그린 뉴욕 스트립 ▲낫토 샐러드와 다양한 구운 채소를 곁들인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 그린&그릴 플레이드 ▲베이컨 먹물 리소토, 구운 콜리플라워 ▲루콜라 페스토로 버무린 푸실리 등과 즐기는 안심 스테이크 트리플 헬씨 하모니 등을 내놓았다.

코카콜라 환타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얼리고 녹여 먹는 재미를 더한 '얼려먹는 환타' 2종을 출시했다. 슬러시처럼 냉동실에서 얼린 뒤 녹여 먹는 파우치 형태로 야외 활동시에도 휴대하기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크라운제과는 얼려먹는 시즌한정 제품 '아이스하임'을 선보였다. 아이스하임은 슈퍼푸드로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받는 그릭요거트의 상큼한 맛과 하임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접목한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의 국내 최초의 얼려 먹는 요거트 '얼려먹는 세븐'을 2013년부터 내놓았다. 1000억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유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려 먹는 재미를 더해 여름철에는 하루 평균 20만 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수입하는 맥주 브랜드 '기린 이치방'은 얼린 맥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일명 '아이스크림 맥주'로 불리는 '기린 프로즌 나마'는 몰트 비어인 '기린 이치방 시보리' 생맥주 위에 -5℃로 살짝 얼린 맥주 거품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토핑해서 마시는 신개념 맥주다.

여름을 앞세운 이벤트도 다양하다. 대상FNF는 29일까지 여름을 맞아 카카오톡 친구를 대상으로 종가집 동치미 물냉면를 2만6500원에서 35% 할인된 가격인 1만7220원에 판매한다.

커피&초콜릿전문브랜드 디초콜릿커피앤드는 8월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시 벤티 사이즈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썸머 빅 이벤트를 연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까지 전 점포에서 '여름 음료 대전'을 열고 음료를 할인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하루야채' 10년간 4억병 팔렸다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는 야채 음료 '하루야채'가 출시 10년만에 누계 판매액 5000억원, 누계 판매량 4억병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하루야채는 2007년 5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야채를 손쉽게 충족시켜 준다는 콘셉트로 출시됐다. 꾸준한 인기를 지속하며 하루 평균 11만개가 판매되고 있다.

하루야채의 성공은 수많은 음료 회사들을 야채음료 시장으로 이끌었다. 야채음료 시장규모는 하루야채 출시 후 3년간 430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1471억원 규모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하루야채의 성공이 많은 음료 회사들을 야채 음료 시장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카누 아이스' 신규 TV광고 온에어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여름 시즌을 맞아 맥심 카누의 신규 TV 광고 카누아이스 여름편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올 봄 다양한 커피 메뉴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던 카누 레시피 편 TV광고의 여름 버전이다.

광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아이스 라떼·아이스 카푸치노·아이스 모카 등 총 4가지 다양한 커피가 등장한다. 카누와 얼음만 있으면 무더운 여름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스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광고 속 주요 메시지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정관장 '천녹삼' 가맹점서 판매 시작

입점 기념 퀴즈 이벤트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의 정관장은 신제품 '천녹삼'이 가맹점에 입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정관장 천녹삼'은 6년근 홍삼에 고품격 녹용을 함유했다. 빠른 피로해소와 원기회복을 원하는 중년 고객층과 유커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출시 5개월여 만에 8000세트 이상 판매됐다.

정관장은 천녹삼 입점을 기념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KGC인삼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연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중국 바라보는 화장지·기저귀

기저귀 관세인하 기대 "프리미엄전략으로 승부"

'K-뷰티' 'K-패션'에 이어 화장지·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이 중국 내수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소비재 격전지 중국, 아시아 문화 특색이 반영된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소비재 수입규모는 2007년 435억 달러에서 지난해 1576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국 소비재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생활용품 업계는 중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감이 큰 만큼 고품질을 내세워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을 뚫겠다는 전략이다.

화장지 브랜드 '잘풀리는집'을 제조하는 미래생활은 중국에서 이달 열렸던 우수입상품박람회에 국내 화장지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참석한 박람회에서 일부 제품이 바이어들이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미래생활 관계자는 "아직 중국 진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람회 이후 현지 업체 2곳으로부터 제안이오기도 했다"며 "진출한다면 전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관심을 끈 물티슈와 보습미용 티슈가 메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물티슈 순둥이를 생산하는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중화권인 홍콩 시장에 먼저 진출해 올해 1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저귀는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다. 특히 이달부터 중국 재정부가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낮추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기저귀의 경우 관세가 기존 7.5%에서 2%로 70%나 인하됐다.

깨끗한나라는 올 하반기에 온·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보솜이 천연코튼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워 고급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중화권에서 유아용품과 여성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홍콩 포함) 매출이 전년 대비 169%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무향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트렌드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제품의 품질력이 인정 받고 있는 만큼, 고품질로 공략한다면 중국 내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서울여대, 교사 진학지도 워크숍

내달 8·9일 중·고교서 100명씩 초청… 26일까지 접수

서울여자대학교 전경.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오는 7월 8일과 9일, 중·고등학교 교사 각각 100명을 초청해 중·고등학생 진로진학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여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로진학 워크북 'Forward'와 인터뷰 카드를 활용한 진로진학 교구 'Forward Box'를 일선 고교에서 활용하도록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제공해왔다. 이번 워크숍은 'Forward' 워크북과 교구 활용법을 안내하고 교사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활용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중학교 교사들에게는 '공동체 놀이를 기반으로 한 협동학습 전략법' 특강이,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서울여자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틈새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참석한 모든 중·고교 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워크북과 진로진학 인터뷰 게임박스 세트가 제공된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이 양질의 자유학기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7월 8일 오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7월 9일 오후에는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다.

/복현명기자 hmbok@metroseoul.co.kr

관광公-SK플래닛 '스마트관광 ICT' 공모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와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은 관광정보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5 스마트관광 ICT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TourAPI와 SK플래닛 T맵·11번가·T클라우드 등의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앱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자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홈페이지(http://oic.skplanet.com)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다.

TourAPI는 관광공사의 국내 최대 9만여 건 다국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서비스(Open API)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시되는 앱들은 다운로드 실적과 심사위원 평가를 반영해 수상팀이 결정된다. ▲대상 1개팀 1000만원 ▲우수상 2개팀 5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상금이 15개 팀에게 주어진다. 또한 수상팀에게는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이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수상작에 대해 홍보마케팅과 광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김화숙 관광정보실장은 "관광정보 활용 창업에 특화된 이번 공모전이 관광정보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두 차례의 공모전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TourAPI와 SK플래닛의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관광 ICT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쌤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문화데이터 활용 설명회'에서 우수 DB활용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이대 의대, 국내 첫 '출생-질병 관계' 빅데이터 구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하은희 교수팀, 지원센터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학장 : 김경효,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교실 하은희(사진) 교수 팀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국가 사업의 지원센터로 선정됐다.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출생 코호트 조사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22년간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출생 코호트 연구는 표본 수를 10만 명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되었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력해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 간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출생 코호트 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하은희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박미혜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은애 교수, 조수진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의정 교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장남수 교수와 함께 이번 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하 교수는 우선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13개 병원에 설치된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모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체 및 환경 시료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과 빅데이터를 연계해 임신과 출산, 성장 발육과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대한 대기 오염, 흡연, 전자파 등 39가지의 인과관계 가설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하 교수는 "어린이는 호흡 위치가 성인보다 낮기 때문에 오염 물질의 노출 기회가 많고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 어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환경부가 사전 예방적인 행정 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민 환경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교수는 2006년 서울·천안·울산 지역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영유아의 환경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국제수은학회 공동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어린이 환경 보건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복현명기자

"파다프, 모든 장르 융복합예술로 승화"

한선숙 상명대 교수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한선숙(파다프 조직위원장·사진) 교수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융복합공연예술축제 파다프(PADAF : Play Act Dance Art-Tech Festival, 이하 파다프)와 관련해 17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아띠 수피아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2015 파다프의 주제(장르간의 충돌, 그 하모니의 미학) 발표에 이어 주요행사 소개와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기획하고 공연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파다프 조직위원장인 한선숙 교수는 "무용과 연극으로 시작한 융복합예술이 올해 파다프에서는 모든 장르의 융복합예술로 승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파다프의 미래가 더욱더 밝고 비전이 보이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현명기자

롯데칠성, tvN '언제나 칸타레2' 제작 지원

'칸타타-클래식 만남' 콘셉트 이벤트·캠페인 등 마케팅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프리미엄 원두캔커피 '칸타타'를 앞세워 tvN의 클래식 예능 프로그램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 시즌2'를 제작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제작지원을 통해 '칸타타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2007년 국내 원두캔커피 시장의 포문을 연 '칸타타'의 정통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벤트와 캠페인 영상·광고 등을 활용해 기존 칸타타 제품에 싱글 원두를 사용한 칸타타 킬리만자로 등을 노출하고 브랜드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더욱 친근한 클래식 예능으로 찾아온 언제나 칸타레 시즌2의 제작지원을 통해 칸타타가 자연스럽게 클래식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눈으로 즐기고 귀로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두캔커피 브랜드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비엣젯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6대 늘린다

베트남 국적 저비용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은 17일 파리에어쇼(The Paris Air Show)에서 에어버스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2017년까지 6대의 A321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 BNP파리바로부터 항공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6000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11년 12월 첫 취항 이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베트남,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가르는 30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초 에어버스 항공기 100대를 주문했으며, 지금까지 총 24대의 A320와 A321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비엣젯항공은 윌리스 그룹 홀딩스, JLT그룹 등 영국 대형 보험사 두 곳과 바오비엣 홀딩스 등 베트남 보험사 네 곳과 15억 규모의 항공기 보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복현명기자

star bag

홍콩 첫 단독 팬미팅

배우 **박신혜**가 홍콩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다. 18일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홍콩에서 첫 팬미팅을 가진 박신혜의 홍콩 프로모션 현장을 공개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아시아투어 중인 박신혜는 홍콩 WTC 모어 몰에서 기자회견과 팬미팅, 사인회 등을 갖고 홍콩 팬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걸그룹 도약

걸그룹 **AOA**가 글로벌 걸그룹으로 도약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8일 "AOA의 새 앨범 '하트 어택(Heart Attack)'이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에서 발매된다"고 밝혔다. 22일 중국 바이두뮤직, 시나뮤직 등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발표한다. 다음달 29일 일본에서도 '심쿵해'를 발표해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2년 만의 단독 콘서트

FT아일랜드가 2년 만에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8월 8~9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5 FT아일랜드 라이드 위 윌(We Will) 인 서울'을 개최한다. 예매는 예스24를 통해 29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 팬클럽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다. 일반 예매는 다음달 2일 오후 8시 오픈된다.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걸그룹 **씨스타**가 신곡 '셰이크 잇(SHAKE IT)'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18일 정오 공개했다. 씨스타와 그룹 노을 멤버 강균성이 각각 악녀와 악동으로 분했다. 지난 여름 '터치 마이 바디'와 '아이 스웨어' 이후 10개월 만의 세 번째 미니앨범이다. 히트 작곡가팀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22일 오전 11시 코엑스 아티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는 밝은 이야기 좋아해요

영화 '마돈나' **서영희**

다음달 2일 개봉하는 '마돈나'(감독 신수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조금은 무겁게 만드는 영화다. 자본과 남성이라는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한 여자의 삶을 액자식 구성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희(36)는 마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 미나(권소현)의 삶을 쫓으면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는 간호조무사 해림을 연기했다.

서영희는 그동안 스크린에서 힘든 역할을 자주 맡았다. '추격자'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 그의 대표작이 된 것은 쉽지 않은 캐릭터를 온몸으로 소화해낸 열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돈나'에서는 극의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관찰자의 입장에 선 인물을 맡았다. 관객과 함께 사건을 바라보는 캐릭터다.

"모성과 같은 여성의 이야기라서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도 크게 와 닿았죠.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품이라 믿음도 갔고요. 관찰자 입장이다 보니 예전 작품들에 비해 몸은 많이 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표현의 한계를 느꼈어요."

서영희는 "작품을 선택할 때 캐릭터의 과거가 궁금해져야 흥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마돈나'의 해림을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영화는 해림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단발머리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인물임을 넌지시 보여줄 뿐이다.

해림이 미나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은 곧 비슷한 상처를 지닌 두 여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영희는 "해림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림이 미나의 삶을 보면서 동조하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미나의 삶이 해림의 과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림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봤어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해림이 한 순간의 눈물로 미나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서영희의 절제된 연기가 빛나는 순간이다. "미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 등 모든 감정이 다 담긴 장면이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 과거의 상처 지닌 간호조무사
> 관찰자 역할 절제된 감정 표현
> 무거움 속 희망찾는 영화 되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지만 서영희는 '마돈나'를 희망에 대한 영화라고 강조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미나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속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희망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관객들도 그런 희망을 안고 극장을 나갔으면 해요. 이런 세상이라도 누군가는 생명을 용기 있게 지켜준다는 희망이요."

서영희는 "개인적으로는 밝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의 필모그래피가 다소 어둡고 무거운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세상의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 때문이다. "웃는 것도 좋지만 심각해질 필요가 있을 때는 심각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도 재미있게 표현하면 돼요. 재미라는 것도 여러 종류의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추격자'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서영희는 "배우로서 아직 중간 정도 온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나이 90이 될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는 그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범위를 찾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저만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배우로서 이 정도의 욕심은 내야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창비 아니라 창피다"

신경숙 표절 의혹 두둔 누리꾼 거센 비난 쇄도

소설가 신경숙(사진)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해명을 자처했던 창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독자와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창비는 지난 17일 신경숙 작가가 보내온 메일과 자사 문학출판부 입장을 담아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의 공식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과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이씨는 한 온라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신 작가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의 한 부분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1925~1970)의 '우국'(憂國)의 한 부분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비는 표절 의혹 제기는 부당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창비가 아니라 창피다" "창작과 비평이 아니라 표절과 두둔으로 바꿔라" "표절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실망스럽다" 등 올곧은 인문정신의 표상이라는 옛 명성은 퇴색되고 상업 출판사의 탐욕만 남았다는 가시 돋친 성토를 쏟아냈다.

창비 직원을 자처하는 이들도 트윗글을 통해 "회사의 입장이 너무 부끄럽다"며 "하루 빨리 회사가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창비가 이 같이 정제되지 않고 자사의 평판에도 이롭지 않은 입장을 내놓은 건 대형 상업출판사로서 주요한 작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준기자 mjkim@

SCREEN

SCREEN

왕좌의 게임5

대한민국 최초 | HBO 동시방송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매주 금요일 밤 11시 본방송

사람들과 소통하는 '음악의 힘' 보여줄 것

3년 만에 새 앨범 '드론즈' 발표… 록밴드 '뮤즈'

'드론의 세상'… 마음 깊숙한 곳 진실된 감정 포착
9월 내한공연 "놀라운 이벤트·라이브 준비 중"

"음악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이며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즐거움만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음악으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힘'입니다."

영국 출신의 3인조 록 밴드 뮤즈(Muse)가 3년 만에 새 앨범 '드론즈(Drones)'로 돌아왔다. 밴드 초기 사운드로 돌아가 만든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다. 싱글 위주의 음악 시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담은 앨범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음악에 대한 뮤즈의 고집을 엿볼 수 있다.

새 앨범 발매를 맞이해 뮤즈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더이자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목표는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만드는 사운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보여준 뮤즈는 이번 앨범에서 드럼머신과 신디사이저를 배제해 이전과 차별화된 사운드의 앨범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새 앨범 타이틀은 '드론의 세상'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매튜 벨라미는 "사람들 마음 속 깊숙한 곳에있는 진실된 감정을 포착하려고 했다"고 이번 앨범의 주제를 설명했다.

"드론은 기술 발전에 따른 휴머니티의 실종 등과 같이 실제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앨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뮤즈가 '드론즈'에서 제시하는 결말은 두 가지다. '애프터매스(Aftermath)'까지는 "인간이 휴머니티의 파워를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억압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반면 '글로벌리스트(Globalist)'는 부정적인 결말을 제시하는 곡이다. 매튜 벨라미는 "이번 앨범의 결말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2년 만의 공연이며 단독 공연으로는 5년 만이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크리스 볼첸홈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많은 팬이 늘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도 놀라운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구상 중"이라며 "공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팬이 좋아하는 노래들과 아직 라이브로 들려주지 않은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정선에 나타난 '아시아의 별' 보아

◆ tvN '삼시세끼 정선편'

금요일 오후 9시 45분

'아시아의 별' 보아가 정선에 나타났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아의 진짜 모습이 공개된다. 택연은 데뷔 16년차 하늘 같은 대선배 보아의 등장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서로가 빙구임을 직감하고 보아의 삼촌팬 서진도 빙구들 사이에서 '빙구화'가 되고 만다. 이들은 '악마음식'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악마죽'을 만들어낸다. 다음날 세 사람은 겁도 없이 생애 최초의 '천연 꿀 따기'에 도전한다.

/정리=하희철기자

◆ MBC '나혼자산다'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강남은 휴일을 맞아 본격적인 집수리에 나선다. 녹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갈고 여름을 대비해 바퀴벌레를 퇴치하려고 하지만 겁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토요일 오후 8시 45분

100분 특집으로 중독된 아이들이 출연한다. 중3이 된 세원이는 운동중독에 빠져 '남자는 힘'이라며 과한 근력운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 tvn 'SNL 코리아'

토요일 오후 9시 45분

웃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웃음을 만드는 사람들 'SNL 크루 스페셜'이다. 그동안 선보이지 못했던 SNL 크루들의 숨겨진 끼와 매력을 대방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0 징비록 (36회) (재) 16시 00 2015 K리그 클래식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8.15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37회) 0시 00 콘서트 7080	12시 25 오렌지 마말레이드 (7회) (재) 13시 25 개그 콘서트 (재) 14시 55 슈퍼맨이 돌아왔다 (재)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35회) 21시 15 프로듀사 (12회) 22시 45 연예가 중계 23시 55 인간의 조건 3 – 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3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19회) 22시 00 여왕의 꽃 (29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12시 10 상류사회(재) 14시 20 런닝맨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재) 16시 50 2015 프로야구 한화:NC,마산 20시 30 SBS 8 뉴스 21시 1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55 그것이 알고 싶다 23시 55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 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58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11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0회)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6회) (재) 16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31·29회) (재) 18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7회) 19시 55 JTBC 뉴스룸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9회) 0시 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7회)

21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6회) 16시 10 징비록 (37회) (재) 18시 00 열린 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38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3시 10 프로듀사 (12회) (재) 14시 3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6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36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801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스타일 포 유 (12회) 0시 55 후아유 – 학교 2015 (16회)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19·20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20회) 22시 00 여왕의 꽃 (30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세바퀴 스페셜	12시 10 2015 한국여자오픈 골프 FR 인천 생중계 13시 10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10 수상한 그녀 0시 25 썸남썸녀 (재)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식스 센스> 16시 00 야옹멍멍 귀여워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공동경비구역 JSA>	13시 20 썰전 (120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50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회) (재) 17시 25 사랑하는 은동아 (7·8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4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8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80회)

'윤덕여호' 사상 첫 16강 진출 쾌거

FIFA 여자월드컵

스페인 2-1 꺾고 첫승 감격 22일 세계 3위 프랑스와 격돌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첫 승을 거두면서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FIFA 랭킹 18위)은 18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조별리그 E조 3차전 스페인(14위)과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1승1무1패가 된 한국은 동시간대 열린 같은 조 브라질(4위)과 코스타리카(37위)의 경기에서 브라질이 1-0으로 이기며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은 22일 오전 5시(KBS2 중계) F조 1위 프랑스(3위)와 16강에서 격돌한다.

이날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던 한국은 1, 2차전에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던 박은선(로시얀카)을 선발로 내보내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지메시' 지소연(첼시)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좌우 측면에는 전가을(현대제철)·강유미(KSPO)를 포진시켰다. 미드필더에 권하늘(부산상무)·조소현, 수비는 이은미·황보람·심서연(이상 이천대교)·김혜리(현대제철)가 포백라인을 구성했다. 골키퍼는 김정미(현대제철)였다.

한국은 전반전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전반 29분 스페인 베로니카 보케테에게 먼저 한 골을 내준 뒤에도 여러차례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 박은선은 부상 여파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 슈팅수 2-8, 공격 점유율 42%-58% 등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에는 달랐다. 후반 8분 대표팀의 주장 조소현(현대제철)이 그림 같은 동점 헤딩골을 넣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스페인의 공세가 다시 펼쳐졌다. 후반 19분에는 스페인의 에이스 보케테의 슈팅을 시작으로 코너킥까지 이어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맏언니이자 수문장인 김정미(현대제철)가 연이은 슈퍼세이브를 선보였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결국 후반 33분에 역전에 성공했다. 역습 상황에서 김수연(KSPO)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린 공이 상대 골키퍼 키를 넘겨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종료 직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스페인에 프리킥을 내주는 위기를 맞았으나 스페인 소냐 베르뮤데스의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가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월드컵 사상 첫승을 거뒀다.

18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랜스다운 경기장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스페인의 마지막 프리킥 골이 빗나가며 2-1 승리를 거둔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랑스와 16강전 숨머 경계대상

첫 출전한 2003년 미국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로 탈락한 한국은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출전인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16강 상대가 유럽의 강호 세계 랭킹 3위인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F조에 편성돼 잉글랜드(6위)를 1-0, 멕시코(25위)를 5-0으로 완파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11년 독일 대회에서 4위에 오른 것이다. 한국은 2003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나 1-0으로 패배했다.

요주의 인물은 조별리그에서 팀의 6골 가운데 혼자 3골을 넣은 유지니 르 솜머다. 잉글랜드와의 1차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고 멕시코를 상대로는 두 골을 몰아쳤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키 161㎝로 큰 편이 아니지만 다부진 체구와 개인기, 몸싸움 능력을 두루 갖춰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프랑스 국가대표로 108경기에서 47골을 터뜨렸고 소속팀인 올랭피크 리옹에서 최근 5시즌 간 146골을 넣으며 빼어난 득점력을 과시한 베테랑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 18일 전적

▷ F조

프랑스(2승1패) 5(4-0 1-0)0 멕시코(1무2패)

잉글랜드(2승1패) 2(2-0 0-1)1 콜롬비아(1승1무1패)

김현수 타구 관중 방해로 7분 날아가

스포츠 주간 해프닝

프로야구에서 관중이 손을 내밀어 공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경기가 7분 동안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3회말 1사 1루 두산 김현수의 왼쪽 담을 향하는 타구를 보며 NC 좌익수 김종호가 뛰어올랐다. 동시에 글러브를 낀 관객이 왼손을 뻗었다. 공은 관객의 글러브를 맞고 그라운드 위로 떨어졌다. 이 사이 1루주자 정수빈은 홈까지 도착했고, 김현수는 2루에 안착했다.

김종호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경문 NC 감독은 심판진에게 다가가 "타구가 팬의 글러브에 맞았으니 인정 2루타로 판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만약 심판진이 김경문 감독의 어필을 받아들인다면 홈을 밟은 정수빈은 3루로 돌아가야 한다. 인정 2루타는 주자의 '2개 루 진출권'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날 심판진은 '관중의 방해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볼 데드'가 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관중의 방해로 경기를 7분이나 중단한 채 판정을 내려야 했다. 경기를 방해한 관중은 퇴장 명령을 받고 경기장을 떠났다. 경기는 두산의 6-2 승리로 끝났다.

두산베어스 김현수

KT위즈 김사현

김사연, 3볼로 출루한 사연

KT의 구단 창단 첫 홈런을 기록했던 외야수 김사연이 3볼 상황에서 착각으로 인해 출루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17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KT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1회말, 김연수는 8번타자로 타석에 나서 3실점으로 흔들린 이민호와 대결했다. 이날 김연수는 공 3개를 모두 볼로 잘 골라냈다. 그런데 갑자기 방망이를 던지고 1루로 뛰기 시작했다. 볼넷으로 착각해 출루하려고 했던 것이다. 마치 지난 1일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조이 보토가 했던 3볼 출루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조이 보토의 3볼 출루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김사연의 3볼 출루는 몇걸음 못가 저지 당했다는 점이다. 김사연은 1루로 향하던 중 덕아웃의 신호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타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파울 플라이로 아웃당했다. /하희철기자

'4번타자' 강정호, 시즌 4호 홈런포

추신수, 4타수 1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4일 연속으로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U.S. 셀룰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1루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지난달 29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선보인 3점 홈런에 이은 시즌 4호 홈런이다.

강정호는 이날 홈런으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이후 4경기 연속으로 팀의 4번 타자로 나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4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해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0(150타수 42안타)로 조금 내려갔다. 4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의 성적은 타율 0.267(15타수 4안타), 4타점, 3득점이다.

피츠버그는 3-2로 화이트삭스를 꺾고 7연승을 달렸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에게 가로막혔으나 불펜진을 상대로 안타를 기록해 무안타 침묵을 깼다. 이날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40(233타수 56안타)을 유지했다.

텍사스는 거포 신인 조이 갈로의 투런 홈런과 프린스 필더의 솔로포를 앞세워 다저스를 5-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하희철기자

Homeplus 'For Sale' Rumor

<홈플러스 매각설>

Suspicion is being raised regarding Homeplus excessively adding depreciation fund in 2014 and has intentionally dropped its price book value.

Due to this effect, they have made a record of losing 300 million dollars of business profits after gaining 1944 million dollars last year.

Some doubt that the holding company TESCO headquarter is trying to hand over Homeplus to privately placed funds or international speculation funds.

On the other hand, Reuters Telecom and the international press reported on the 4th that TESCO has selected HBBC as Sale Supervisor and has sent privately placed fund and investment manual to some enterprise.

홈플러스가 2014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계상해 회사 장부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9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지배회사인 테스코 본사가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자본에 홈플러스를 손쉽게 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 매각주관사로 HSBC를 선정하고 사모펀드와 일부 기업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PAGODA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7			1	8	6			9
5			7	2	8			6
	7	3	5		1	8	4	
	9	5	4		3	7	2	
3			2		9			4
	1						6	

		2	7		4	8		
			8		9			
		1				6		
			2		6			
	6		3		8		9	
7			1		2			4
6		3		8		2		5
1				4				7

스도쿠 정답

2	8	9	3	4	7	6	1	5
7	5	4	1	8	6	2	3	9
1	3	6	9	5	2	4	7	8
9	2	8	6	3	4	1	5	7
5	4	1	7	2	8	3	9	6
6	7	3	5	9	1	8	4	2
8	9	5	4	6	3	7	2	1
3	6	7	2	1	9	5	8	4
4	1	2	8	7	5	9	6	3

3	9	2	7	6	4	8	5	1
4	5	6	8	1	9	7	2	3
8	7	1	5	2	3	6	4	9
2	3	8	4	9	1	5	7	6
9	1	7	2	5	6	4	3	8
5	6	4	3	7	8	1	9	2
7	8	5	1	3	2	9	6	4
6	4	3	9	8	7	2	1	5
1	2	9	6	4	5	3	8	7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최근 연인과 이별… 결혼운은 언제쯤 올까요
과거 경험토대로 생활개선·돈버는 일 노력을

행복하자 남자 78년 1월 20일 음력 10시
여자 79년 1월 6일 음력

Q 얼마 전 이별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결국 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라왔으며 평생 한량으로 지내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지금까지 혼자 살아 왔습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과 재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다시 만날 인연이 된다면 결혼까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힘들어도 잊고 다른 인연을 기다려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인연을 만나야 한다면 저는 언제쯤 결혼 운이 올까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A 사전에 운(運)이란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氣數)로 설명돼있습니다. 돈을 버는데도 사람과 사람 이성과의 인연을 만나는데도 운이 발복하면 하고자하는 일이 깔끔하게 전개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겠지요. 운이 기울 때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관계에서는 연인이 떠나가거나 돈의 판단에서는 제정신이 아니게 무리한 투자를 하여 손실을 만듭니다. 행복하자님의 성정은 '전답이 메마른 형상'으로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트려 후에 번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진살(怨嗔殺:원수지듯 지내지만 막상 헤어지지도 못함)이 있어 부부생활이 화목치 못함이 잠재돼 있습니다. 당분간은 다른 사람과의 인연도 머무르지 않으며 속행하여 결혼을 한들 결혼 후에도 습관이 맞지가 않아 그 영향으로 두 부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복이 부족한데다 감정으로 이성과 헤어진 후 '너 아니면 여자가 없겠냐. 하지만 막상 헤어지면 그 여자보다 더 못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번뇌에 빠지지 말고 상쾌한 운으로 전개시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바꾸어가야 할 것이며 자신의 주변을 깔끔히 하면 운은 새롭게 전개됩니다. 스스로 심하게 자책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헤어진 여자분이 제 발로 들어오지는 않으며 상대 분은 발전 없는 생활에 고독한 기운과 싫증이나 권태를 느꼈다고 봅니다. 귀하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일수 있는 과거지사를 속히 기억에서 지우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개선하는 자세와 돈 버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현실을 만들어 허약함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9일 (음 5월 4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 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윗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51년생 매사가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4년생**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76년생** 괴로운 일 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88년생** 귀인을 만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54년생 대기만성의 운이 있습니다. **66년생** 금전의 유통이 잘 될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운이 있습니다. **90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55년생 뜻밖의 양심고백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우연한 일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79년생**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뚫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방 분실을 주의하세요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58년생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0년생**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깁니다. **94년생** 합격운이 있습니다.

59년생 주변사람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방에서 원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잔인한 6월에서 살아남기

8월말에 교환학생으로 중국 상해로 떠날 예정인 딸아이는 7월초 사전답사 형식으로 상해를 가려던 일정을 접었다. 한국 학생을 마치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곱지않은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이다. 여행이야 그렇다 치고, 8월로 예정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딸아이 학교에선 아직까지 중국 대학으로 부터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 등 일부 중화권 대학들이 한국의 메르스 확산 여파로 한국 교환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좌불안석이다. 메르스 확산이 불러온 또 다른 풍경이다.

유커 발길로 북적대던 명동거리는 썰렁하다. 이 때문일까.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업종의 시가총액은 한달 새 3조4000억원가량 사라졌다.

유통업계 역시 유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백화점 업종에서도 한달 간 시가총액이 2조3000억원가량 실종됐다.

여행·레저주에서 줄어든 시가총액 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메르스 사태 발생 후 한달 동안 화장품과 백화점, 여행·레저주에서만 6조50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가려있지만 40여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피해 역시 재난수준이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이 급등했다.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가락시장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경락가격은 2393원으로 1년 전(760원)보다 무려 214.9%나 급등했다. 또 1kg당 평균 도매가격 상승률은 양배추가 1년 전보다 185%나 올랐다. 대파(120%), 시금치(54%), 양파(48%), 무(41%)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5월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 기준인 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어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 걱정되는 건 올여름 장마가 7월 이후로 예년에 비해 늦어질 것이란 기상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전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손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18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총 165명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3.9%로 높아졌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사망자와 확진자를 보면서 손씻기만 잘하면 되는 중동식 독감일까. 이래저래 6월은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최고 현대중공업의 투트랙 홍보전략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기자>

어느새 6월의 중턱을 넘어섰다. 이제 며칠 후면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든다.

이런 시점에서 자타공인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3위 추락은 꽤 오래 지속되는 양상이다.

18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주잔량 기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이어 3개월 연속 3위에 머물렀다.

어떤 분야든 세계 3위는 엄청난 기록이다.

하지만 클락슨 순위표의 최상단을 당연하게 여겼던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선두 탈환만이 자부심을 회복시켜줄 듯하다.

올해 수주상황과 함께 우려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홍보부서의 언론대응 자세다.

'세계최초', '세계최대'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그들의 전략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대응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투트랙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로 기억한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이 상무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믿을만한 내부관계자에게 들었다.

확인차 홍보팀에 연락했더니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확실한 정보였기에 재차 물었지만 거듭 부인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 정기선 상무의 승진을 포함한 인사내용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를 쓰고있다고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굳이 시간차 단독기사 하나 안 쓰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홍보팀이 사실 확인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모습은 글로벌 1위 현대중공업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당시 항의에 대해 홍보 측도 동의했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일을 몇 차례 겪었고, 이제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까지 맞보고 있다. 통상 홍보팀은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음 후에라도 확인전화를 건다.

불리한 사실이라고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은 최근 여러기업들의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홍보는 잘한 것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게 불리하게 느껴지거나 민감한 내용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해 오해를 풀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 더 큰 화를 부른다. 현대중공업의 해외수주와 홍보팀의 전화선도 뚫리길 기대해본다.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다이어트 돕는 한방차

여름철에는 입맛은 떨어지고 갈증과 더위 때문에 커피나 탄산음료 등 다양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한방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녹차는 다이어트 기간 자주 마시면 지방 분해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혈관에 쌓이기 쉬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몸에 열이 많아 갈증이나 더위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 찬 성질의 녹차가 도움이 된다. 강한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오미자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기름지고 단 음식을 당기게 하고, 과식과 폭식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오미자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여름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오미자차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미자의 신맛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입 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박하차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 안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여름철 체내 열기를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되며, 통증을 완화하며 긴장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독소나 노폐물이 우리 몸 곳곳에 쌓이면서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박하차는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뭉친 기운을 풀어주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진다.

몸이 많이 차거나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다이어트 기간에는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제계약은 체결을 잘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 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정겹게 소통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거래를 하면서 계약조건을 따지는 모습이 매몰차고 인정이 없는 소인배로 비춰지기도 한다. 계약이라는 제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늘 불편한 것이다.

한국기업은 국제거래에서 성공하려면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어 왔기 때문에 국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는다. 계약협상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 문제이다. 이렇게 공을 들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이 서명되고 나면 계약서는 바로 책상서랍으로 들어간다. 더 이상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외국기업이 대금지급을 늦게 해도 한국기업은 기다려 준다. 가끔씩 독촉하기도 하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까 봐 계약상 권리를 내세우거나 계약위반상황임을 외국기업에 통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국기업이 계약상 다른 조건들을 위반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힘들게 협상하였던 계약조건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 버린다. 이럴려면 왜 힘들고 복잡하게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외국기업 같았으면, 한국기업이 계약과 달리 움직이면 바로 계약조항을 들이대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서로 원만히 타협이 된 부분도 서류로 증거를 남겨 분명히 정리하고 가려고 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기업은 그때에야 비로소 서랍 속에 들어 있던 계약서를 꺼내어 본다.

계약대로라면 상대방에서 계약위반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거래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것이 국제계약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다.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의 매뉴얼이다. 계약대로 거래를 하자는 것이 당사자의 뜻인 것이다. 항상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문화이다 보니 계약이 거래의 매뉴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상담회

예비 신랑♥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던킨도너츠 · 농협은행 · 카페 7그램 · 공평갤러리 · 하나투어 본사 2층 · 치킨뱅이 · 삼성생명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 종각역 · 피자헛 · 3 · 4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1 발리 6일

푸리 2박+불가리 오션뷰 2박

1,830,6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발리(4) ● 9월 한정특가
- 빌라 내 레스토랑 디너 1회와 런치세트 포함
- 발리 문화 체험 및 우붓 관광, 시내관광 포함
- 푸리 누사두아 디럭스룸 2박+불가리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2박
- 4회 마사지 포함
  – 아로마 오일 마사지, 초코렛 스파 2회, 황실 전통 지압 마사지

02 파리/스위스 7일/8일

NOVOTEL TOUR EIFFEL 호텔

3,32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0/1)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한국인가이드의 편안한 공항→미팅&샌딩서비스 포함
- 하나투어 허니문 전용 테이블 및 예약제 운영 스위스 특식
- 야간 에펠탑 전망대(2F), 세느강유람선과 파리 야경투어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90,9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7월 4일~12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5일

르네상스 풀빌라 3박

1,0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7월~10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푸껫(3) ● 여행용 캐리어 24인치 제공(커플당 1개)
- 커플 500바트 현지화폐 축의금 제공
- 1인 만원 추가시 $130상당 선택관광 포함
- 피피섬, 팡아만 관광 포함

☎ 예약문의 02)2127-12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6.12.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